

신당, '통합상징' 호남 시도지사 공천률 어떻게 될까

지방선거 기획단 곧 발족... 민주 "경선원칙" 새정치 일각 "전략공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조만간 지방선거 기획단을 발족,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물 마련에 나선다. 특히 호남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혼재,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어떻게 통합의 상징성이 담긴 공천 물이 마련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복수 후보 지역에서는 경선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지분 나눠먹기 식의 공천은 새정치에 역행하고, 민심의 후폭풍을 피할 수 없어 경선

을 통한 상황식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당의 카운터 파트너 새정치연합이 실질적인 당원이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은 당원이 없어 당원 경선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하지만 서로 조금씩 기득권을 내려놓고 접근한다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당원을 포함한 경선은 사실상 민주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당원 경선을 배제하던지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경선 참여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통합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에서 새정치연합 측 인사로 전략공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전략공천은 민주당 소속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 지역 민심의 반발에 직면할 가

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후보 전략공천 문제와 관련, '호남 불모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창당 과정에서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공천이 흥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일방적인 전략공천보다는 세부 경선 방안이 있어 민주당이 새정치연합 측의 주장과 입장을 배려하는 수준에서 합의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승원 칼럼

가령 천상병 같은 시인 혹은 자기 예술에 참으로 충실한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행동 없는 식물성 무정부주의자일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순수한 사람들이다. 내가 읽은 바로는 임방울이라는 소리꾼도 그와 마찬가지로 장편소설 '사랑아 피를 토하라'를 썼다. 그에 대한 무수한 전설을 모으고 임방울재단에서 많은 자료를 얻었다. 광산구 송정리에서 태어나 한 세상을 소리로서 품미(風靡)한 소리꾼 임방울. 많은 사람들은 그가 타고난 미성을 피나게 절타탁마한 천재적인 소리꾼이라는 것은 알지만 민족분단으로 인해 참변을 당하고 나서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그는 해방 이후, 경찰에 끌려가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한 후유증을 안은 채 무대 위에서 소리를 하다가 쓰러져 죽었다. 일제 식민지 시절, 임방울은 압박받

정했다. 한 번 부르고 나니 재청(再請, 앙코르)을 원했다. 재청 다음에는 삼청을 했고, 거듭 사청 오청을 했다. 청중들 가운데는 직접 달려나가서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이물(공연료)을 건네고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청하는 이도 있었다. 다음에는 오사카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그것을 유지한 것이 조총련이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임방울에게 "우리 내친 김에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합시다. 우리 김일성 수령께서 임 명창을 환대할 것이요." 하고 말했다. 그때 옆에 있던 거류민단 사람이 옆구리를 찔러대며 조심하라고 귀엣말을 하자 임방울은 차후에 기회를 보자며 발을 뺐다. 그 때문이었던지, 다른 밀고 때문이었던지, 임방울은 귀국한 다음 경찰에 끌려가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한 후유증을 안은 채 무대 위에서 소리를 하다가 쓰러져 죽었다. 결국 과도하게 받은 공연료와 평양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의 참변

는 한반도 인민들의 한을 소리로 풀이 준 소리꾼이었다. 그가 부른 '속대머리' '앞산도 찹찹하고' '추어 혹은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가난타령' '춘향가' '적벽가' '수궁가' '흥부가' 따위의 소리는 한 건강이 회복된 듯싶었지만 김제의 한 공연에 출연했다가 무대 위에서 쓰러져 죽었다. 예술가가 기관에 잡혀 들어가 고문을 당한 사례는 많다. '세백 빛 와당이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고 노래한 어린애 같이 순박한 천상병 시인은 독일 간첩단 사건에 휘말린 뒤 중앙정보부에 잡혀 가서 고문을 당하고 폐인이 되었다. "일본 거류민단(동포단체)에서 우리 여성극극단을 초청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건너가서 '견우와 직녀'를 공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한사코 임방울 선생이 도창(導唱)을 하게 모시고와 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방울은 여성극극단을 따라 도쿄에 가서 '견우와 직녀'라는 극의 사이사이에 도창(창극에서 연기자가 아닌 제삼자가 무대 뒤나 앞에서 극의 전개를 창으로 해설하는 일)을 했다. 한때, 극장에 몰려든 일본교포들은 극이 끝난 다음 임방울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들은 임방울에게 거듭 소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속대머리' '앞산도 찹찹하고' 따위를

에 가서 공연을 하기로 약조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다. 이때 얼마나 많은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는지 임방울은 기억상실증과 감박증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폐인이 되었다. 한 해 뒤 건강이 회복된 듯싶었지만 김제의 한 공연에 출연했다가 무대 위에서 쓰러져 죽었다. 예술가가 기관에 잡혀 들어가 고문을 당한 사례는 많다. '세백 빛 와당이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고 노래한 어린애 같이 순박한 천상병 시인은 독일 간첩단 사건에 휘말린 뒤 중앙정보부에 잡혀 가서 고문을 당하고 폐인이 되었다. "일본 거류민단(동포단체)에서 우리 여성극극단을 초청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건너가서 '견우와 직녀'를 공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한사코 임방울 선생이 도창(導唱)을 하게 모시고와 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방울은 여성극극단을 따라 도쿄에 가서 '견우와 직녀'라는 극의 사이사이에 도창(창극에서 연기자가 아닌 제삼자가 무대 뒤나 앞에서 극의 전개를 창으로 해설하는 일)을 했다. 한때, 극장에 몰려든 일본교포들은 극이 끝난 다음 임방울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들은 임방울에게 거듭 소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속대머리' '앞산도 찹찹하고' 따위를



기자 질문에 답하는 박용진·금태섭. 박용진 민주당 홍보위원장(오른쪽)과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청장 후보 4명, 호남 첫 단일화 합의

김상집·신광조·신현구·이춘문... 다음달 10일까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이 '기초단체장 무공천'을 선언한 뒤 호남에서는 처음으로 새정치연합 성향의 광주 서구청장 출마 예정자들이 단일화에 합의해 주목된다. 김상집·신광조·신현구·이춘문 등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서구청장 선거를 준비해 왔던 후보들은 4일 광주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기초단체장 무공천이 광주에서는 자칫 기득권 유지와 강화 등의 도구로 전략할 우려가 크다"며 "변화와 새 정치를 열망하는 신당창당의 정신을 살려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단일화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여론조사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다음달 10일 전에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단일화는 사실상 김중식 현 서구청장과 대결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앞으로 김중식·이성일·임우진 서구청장 출마 예정자 등 민주당 소속 예비 후보들의 단일화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중식 청장이 구정을 수행하면서 각종 잡음과 불협화음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서구청장 선거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김중식 대 반(反) 김중식 단일 후보' 대결구도가 형성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기득권 유지와 강화는 신당창당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곡성군수 출마예정자들과 순천시청 출마예정자들도 현지 단체장에 맞서 후보 단일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엔서 위안부문제 직접 제기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직접 제기키로 했다. 윤 장관은 애초 이번 인권이사회 참석을 검토하다가 막판 이를 철회했으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다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4일 윤 장관이 이날부터 6일까지 제네바를 방문,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국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고 기어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도선관위원장에

박병철 광주고법 부장판사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박병철 광주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제30대 전남도 선관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4일 밝혔다. 신임 박병철 위원장은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7회에 합격한 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광주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박병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자세로 선거관리 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민주정치 발전과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축원룸매매(전대1분)

전대상대2분상가원룸 (용봉지구코너)

신축 4층 21개(1층 상가 2칸, 2층 18개 4층 주택)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엘리베이터 완비, 최고위치 공사완료 고급주택, 정남향 (상가 원룸 위치에서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용 3억, 보 1억)

★수원지구상가(수익형, 확실보장)★

1층상가(17.5평) 대방5차 A후문 매가 3억 5천보2천, 월130만, 용 2억
3층상가(85평) 모이엘가 A후문 매가 3억 5천보3천, 월200만, 용 2억5천
3층상가(62평) 롯데마트 전면도로 매가 2억 8천보3천, 월150만, 용 1억5천

임대 3층(45평) 모이엘가 A후문보2천, 월110만
3층(62평) 롯데마트 전면도로보3천, 월150만, 분할가

★빌리형원룸매매(쌍촌동운천역2분)★
3천소액투자노후보장(연금처럼수익발생)
·원룸형매매 3800만 주택 11평 (보 200만, 월 30만, 용 1,000만)
·원룸형매매 4000만 주택 12평 (보 200만, 월 32만, 용 1,000만)
·투룸형매매 4800만 주택 14평 (보 300만, 월 40만, 용 1,500만)
·투룸 임대 즉시임주가 출몰성 (원룸 보 200만, 월30만/투룸 보300만, 월 40만)

(주)대신종합건설개발 ☎010-6670-9800/ 062)952-5984

여수 상업지 토지매매

여수시 중앙동 상업지 코너

기업은행빌딩 (옛 재중병원자리) 중심상업 소풍거리

154평 (매가 8억5천) 최고위치 신축 5층 이상 가능 (건폐율 90%, 용적률 800%이상)

웃메이커, 커피숍, 편의점 신축 가능

(주)대하이앤씨 010-6670-9800 062)952-5584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금매 광주은행본점 부근 대안동 대로변 649㎡(210) 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4천6천 매도 11억
- 지하철 쌍촌역 4거리 대로변 준주거 377㎡(111) 병의원, 사육,학원,자동차정비시설 등 7억 천
- 동명동 대지 318㎡(96)건평 228평 상가, 주택, 원룸등 18개 전세 1억2천전에 월500천 9억46천
- 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6) 4층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 2천
- 동구 대지 542㎡(164)건물 3968㎡(1200)18억 2천
- 동구 예식장건물 대지 1924㎡(582) 건물3287㎡(994) 요양병원등도 적합 감정 47억3천 은행 18억 매도 26억
- 남구청 부근 대로변 병원, 요양시설등 적합 대지 1461㎡(442)6층 건물 3656㎡(1015)은행 26억 가능 매도 36억3천

임대·투자

- 임대,쌍촌동용산그린아파트부근 투룸,쓰리룸 보증금 천만원에 월 30~40, 방크고 깨끗함
- 화순군 능주면 관리지역 1296㎡(392) 2천만원
- 해남군 문내면 전과 담 5557㎡(1681) 은행 6천 귀농생활에 최적합 매도는 은행인수하고 천만원
- 시골주택 담양군 봉산면 광주에서 10분거리 대지 665㎡(198)주택 162㎡(49)전원생활적합 9600만원
- 남평을 오거리 대지 536㎡(162)은행 2천 매도 4천
- 투자, 매월통 매월저수지및 경관출을 빌라, 다세대 적합 자연 녹지 5485㎡(1659) 매도 31억5천
- 쌍촌동 구 등기소 부근 신축투룸 500에 40선에 임대 1층 가계 22평은 전체나 분할해서 임대가능함 임대조건은 타할가능함
- 장성을 그린벨트산 4만평 3억 8천만원
- 쌍촌동 용산그린아파트 부근 2층 주거지 674㎡(316)디거구, 다세대 적합 공시지가 4억3천 매도 4억5천
- 삼각동 2층 주거지 618㎡(187)원룸 적합 4억3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희망공인중개사

고객님의성공을희망합니다

상가/건물

- ▶ 삼무지구 신축건물 매 72억
- ▶ 쌍촌동 광산구 대로변 3층건물 매매 12억
- ▶ 쌍촌동 5층건물 매 15억(보 1억7천 월666만원 포함)
- ▶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구분포도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명프랜차이즈 입점)
- ▶ 전남대 정문 신축 4층원룸건물 480㎡(원룸11 투룸3 주인세대) 매 9.5억(보3.3억 월477만)
- ▶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대지 750㎡ 매매 26억
- ▶ 서구 쌍촌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661㎡ 매매 14억
- ▶ 서구 쌍촌동 대지 5,000㎡ 32억(원룸단지적합)
- ▶ 남구 주월동 병원최적합 부지 2,290㎡ 매매54억
- ▶ 북구 신안동 대지 3,100㎡ 매매 36억
- ▶ 북구 문흥동 교도소부근 집중지 6,300㎡ 매매 50억
- ▶ 광산구 대신동 계획관리지역 전 29,800㎡ 39억

기타

- ▶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 ▶ 영암 삼호중공업 인근 주유소 매 8억(용 5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 환영

서구 치평동 라인동신아파트 102동 앞 상가 109호 ☎ 010-5536-0382 062) 373-0382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 금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 지 3,305㎡ 건물 1,300㎡

- 사무실 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 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하동 자연녹지(2,100㎡) 일반 공업지역(2,400㎡) 허가됨, 매매가격18억원

쌍촌동 대로점 대지(1,100㎡)건물(300㎡) 매매가격 17억원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